

단국대학교 2017학년도전형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가이드답안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중심으로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다]의 주장을 요약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지라도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소의 배설물이 쇠똥구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악어의 이빨에 끼인 찌꺼기조차 악어새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보노라면,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악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생물체는 저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리 없이 살아간다.

수많은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나]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열어 죽을 때 /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출처 : 김대용 외, 『고등학교 문학』

[다] 지금 막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섯 해 동안에 걸쳐 인간들에 대한 잔인한 살해가 자행된 끝에 드디어 이제 희생자들을 애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은 다시 평화와 질서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질서와 안정을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고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 앞으로 며칠 후에는 파괴되고 약탈당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략)…… 전선에서 싸운 병사들이나,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단지 그 책임을 다한 소시민들이, 스스로를 독일이라고 칭하였던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중략)…… 당신들 중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 당신들의 부모와 아이와 형제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수천 명의 독일인들에 의하여 비난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참극의 실상을 모르는 독일인들이 수백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략)…… 만약 수일 후에 이곳에서 자유를 향한 문이 열리게 된다면, 공장 인근에 있는 많은 이들이 식량과 의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충분한 식량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얻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열두 시 오 분 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약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백만 희생자들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복수나 폭력 행위도 삼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토마스 크닐리, 『선들러의 리스트』

**[문제 2]**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한 [가], [나], [다]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고, [라]에 제시된 보복 운전의 처벌과 관련하여 [가]~[다] 가운데 하나의 견해를 선택하여 정당화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범죄는 이성적 존재가 보편적 입법원칙에 위반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에 있다. 공적 영역에서 정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리는 등가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무고한 해악을 가했을 때 가해자는 동일한 해악을 자신에게 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인죄의 동조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출처 : 칸트, 『윤리형이상학』 (조성민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한은 사회 계약에 따라 결합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은 그 어떠한 것도 본질상 정의롭지 못하다. 형벌의 목적은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을 뿐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확실성과 지속성에 있다. 형벌이 잔혹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경우보다 잔혹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훨씬 강한 인상을 줄 것이다. 훌륭한 입법은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불행을 극소화하는 것이다. 강제는 오직 일시적인 복종만을 얻어낼 뿐이기 때문이다.

출처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김왕근 외,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에 있다. 범죄인은 인류학적으로 유인원과 유사한 해부학적 특징을 지닌다. 진화 이전 유인원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시대착오적 인간의 출현은 격세유전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러한 선천적 범죄인은 타고난 범죄성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든 거의 틀림 없이 범죄를 저지르며, 이들은 예방이나 교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범죄인은 범죄의 습성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여야 하며, 격리라도 교화되지 않는 범죄인은 사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범죄 행위의 원인은 선천적인 조건에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자유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응보형주의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형벌 이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사회 방위의 필요성에 따라 재편되어야 한다.

출처 : 롬브로조, 『범죄인론』

**[라]** 최근 보복 운전(road rage)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복 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 운전과 달리, 특정한 상대에게 위협을 초래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②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③ 급진로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④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⑤ 급정지 후 진로를 막아 세워 욕설 및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전에는 4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형법상 특수폭행, 상해, 협박, 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서로 양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한다.

출처 : 출제진 집필

[문제 3]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동원과 보영이 [라]에 제시된 펀드 가운데 각각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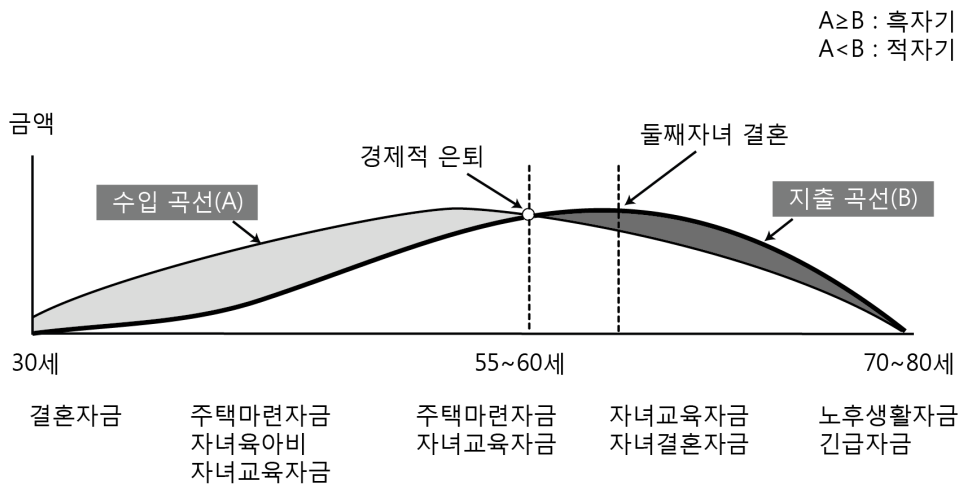
[가] 선택은 여러 개의 대안 가운데서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선택에는 항상 얻는 것과 잃는 것, 즉 원하는 것을 얻는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의 편익과 비용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제생활은 무수히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며, 만약 같은 비용이라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고, 같은 크기의 편익이라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합리적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산 관리란 다양한 금융 상품 가운데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채무 불이행과 금융 상품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요인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 상품 중에서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은 데 비해 이자율이 높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즉, 자산 관리란 수익성과 안정성의 상충 관계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오영수 외,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나] 생애 주기(라이프 사이클)와 재무 설계



출처 : 금융감독원, 『즐거운 금융교실』

[다] 동원은 현재 30세이며, 미혼인 남성 직장인으로서 월급 이외의 추가 수익을 얻고자 적극적 자산 증식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에 반해 보영은 현재 75세로 남편과 사별한 전업주부로서 안정적 노후 생활에 관심이 매우 크다. 동원은 약 5년 전에 펀드에 투자하여 15%의 원금 손실을 경험했으며, 보영은 약 10년 전에 펀드에 투자하여 10%의 원금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 두 명 모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장기 펀드 투자를 하려 한다.

출처 : 출제진 집필

[라] 펀드 예상수익률의 확률분포

경기 상황 \ 펀드	펀드 예상수익률			
	펀드 A	펀드 B	펀드 C	펀드 D
호황일 경우 (가능성=50%)	45%	50%	12%	14%
불황일 경우 (가능성=50%)	-5%	-10%	-4%	-2%

출처 : 출제진 집필

※ 참조: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일반적으로 이산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	$x_1$	$x_2$	$x_3$	...	$x_n$	합계
$P(X=x_i)$	$p_1$	$p_2$	$p_3$	...	$p_n$	1

$x_1p_1 + x_2p_2 + x_3p_3 + \dots + x_np_n = \sum_{i=1}^n x_i p_i$ 를 이산확률변수  $X$ 의 기댓값 또는 평균이라 하고, 기호로  $E(X)$ 와 같이 나타낸다.

이산확률변수  $X$ 의 평균을  $E(X) = m$ 이라고 할 때, 편차  $X - m$ 의 제곱의 평균

$$E((X - m)^2) = (x_1 - m)^2 p_1 + (x_2 - m)^2 p_2 + (x_3 - m)^2 p_3 + \dots + (x_n - m)^2 p_n = \sum_{i=1}^n (x_i - m)^2 p_i$$

이산확률변수  $X$ 의 분산이라 하고, 기호로  $V(X)$ 로 나타낸다.

또, 분산의 양의 제곱근, 즉  $\sqrt{V(X)}$ 를  $X$ 의 표준편차라 하고, 기호  $\sigma(X)$ 로 나타낸다.

출처 : 우정호 외,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